

2026년 1월 2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대형 이벤트 속 코스피 5,000pt 공방전

이번주 코스피는 1) 1월 FOMC, 2) MS, 메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M7 실적,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 주 중반 이후 몰린 국내외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5,000pt 안착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880~5,120pt).

코스피는 지난주 장중 5,000pt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기록 달성을 시현한 상황. 반도체 중심의 이익 모멘텀 개선, 상법개정안 등 정부 정책 기대감, 여타 자산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성 자금 등과 같은 이익, 정책, 수급의 조합이 이 같은 진기록 경신을 만든 것으로 보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000pt를 터치한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5,000pt선 안착 후 주가 레벨업의 지속력 확보 여부라고 판단. 따라서, 1월 FOMC, 4분기 실적시즌 등 주중 예정된 메이저급 이벤트를 치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검증해 나갈 전망.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아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집중된 결과 장중 코스피는 5,000pt선 돌파 이후 숨고르기 국면 돌입. 한편, 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닥 또한 반등하며 양 지수 상승 마감 (KOSPI +3.08%, KOSDAQ +4.12%)

주 초반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대외 불확실성(그린란드발 유럽 8개국에 10% 관세 부과 언급)으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기존 대형 주도 업종의 반등세가 지속된 결과 상승 출발. 특히, CES 2026 이후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은 피지컬 AI, 자율주행, 로봇틱스 관련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지속되며 폭등세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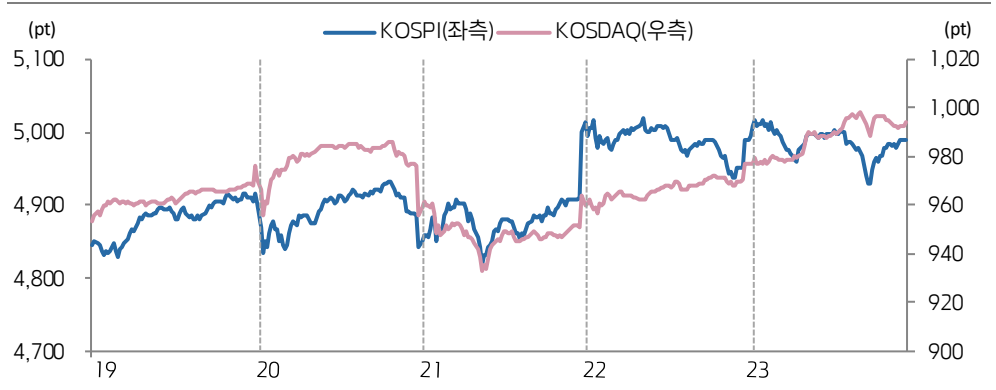
한편, 연초 이후 트럼프발 지정학적 노이즈가 지속되었음에도 건조한 흐름을 보였던 미 증시는 지정학적 이슈가 관세 전쟁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 속 주중 2%대 급락.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관세 부과 언급 이후 유럽의 보복성 관세 및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검토,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 보유 매도 결정 등 격화 조짐이 예상된 점이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

다만,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문제 관련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화적 발언을 언급한 이후, 유럽 8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 심리 반영되며 미 증시는 재차 상승 전환.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 해소 속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대형주 매수세 지속된 결과 코스피는 장중 5,000pt선을 돌파. 5,000pt선 돌파 이후 주도주 → 소외주 순환매 양상 나타난 가운데 정부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pt 목표 언급 소식이 전해지자 주 마지막 거래일 스테이블코인, STO 관련 테마에 매수세 집중된 결과 코스닥 급등세로 마감.

업종별로 전기/가스(+10.7%), 오락/문화(+8.39%), 증권(+7.46%), 화학(+7.23%), 통신(+5.74%)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2.83%), 기계/장비(+0.02%), 비금속(+0.07%), 운송/창고(+0.15%), 부동산(+0.26%)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164억원)은 전기/전자(+11,739억원), 금융(+9,609억원), 화학(+6,087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318억원)은 전기/전자(+2,495억원), 화학(+2,409억원), 금속(+1,541억원), 금융(+1,078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6년 1월 26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월 26일	월	미국	내구재 주문 (MoM, 잠정치)	11월	3.0%	-2.2%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월	-	87.6
1월 27일	화	미국	달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12월	-	-10.9
		실적	유나이티드헬스그룹			
1월 28일	수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월	90.0	89.1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지수	1월	-	-7.0
		실적	ASML 기아,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1월 29일	목	미국	무역수지	11월	-\$45.0b	-\$29.4b
		회의	FOMC 금리결정 (오전 4시)	1월	3.50-3.75%	3.50-3.75%
		실적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램리서치, I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OSCO 홀딩스, LG화학			
1월 30일	금	한국	산업생산 (YoY)	12월	-3.0%	-1.4%
			소매판매 (YoY)	12월	-	4.2%
	유로존	GDP 성장률 (QoQ, 속보치)	4분기	0.3%	0.3%	
		GDP 성장률 (YoY, 속보치)	4분기	1.3%	1.4%	
	독일	CPI (YoY, 잠정치)	1월	1.9%	1.8%	
	미국	PPI (MoM)	12월	0.3%	0.2%	
		근원 PPI (MoM)	12월	0.3%	0.0%	
		PPI (YoY)	12월	-	3.0%	
		근원 PPI (YoY)	12월	-	3.0%	
	실적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애플, 비자, 엑슨모빌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주 코스피는 1) 1월 FOMC, 2) MS, 메타, 애플, 테슬라 등 미국 M7 실적,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주도주 실적 등 주 중반 이후 몰린 국내외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5,000pt 안착을 시도할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880~5,120pt).

23일(금) 미국 증시는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한 인텔(-17.0%)의 주가 폭락, 이란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엔비디아(+1.5%)의 중국향 H200 판매 기대감 재확산, 1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4.0% vs 컨센 4.2%) 등 상방 요인이 지수 하방 압력을 제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0.58%, S&P500 +0.03%, 나스닥 +0.28%).

코스피는 지난주 장중 5,000pt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 반도체 중심의 이익 모멘텀 개선, 상법개정안 등 정부 정책 기대감, 여타 자산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성 자금 등과 같은 이익, 정책, 수급의 조합이 주된 동력이었던 것으로 판단.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피 5,000pt선 안착 후 주가 레벨업의 지속성임. 따라서, 1월 FOMC, 4분기 실적시즌 등 주중 예정된 메이저급 이벤트를 치르면서, 5,000pt 레벨 달성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지가 중요해진 시점.

우선 1월 FOMC에서는 실제로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Fed Watch 상 1월 동결 확률이 95%). 또 1월 중 발표된 12월 고용과 CPI 모두 섀도우 여파가 잔존했던 데이터였음을 감안 시,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데이터 의존성만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칠 것으로 판단.

이보다는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차기 연준의장 지명 건이 증시에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 현재 실용성 증시파인 릭 리더 블랙록 채권 CIO(Poly Market)상 지명 확률 57%), 매파 성향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지명 확률 27%) 등 두 후보로 압축된 상태. 이 둘 중 누가 지명되느냐에 따라 3월 FOMC(동결 유력)를 포함해 연준의 예상 정책 경로에 변화가 생길 전망.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국내외 주도주들의 실적 이벤트가 관건. 미국에서는 MS, 메타, 테슬라, 애플 등 M7주 실적이 발표될 예정. 연초 이후 23일까지 이들의 주가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엔비디아(-4.5%), MS(-6.0%), 애플(-9.3%), 테슬라(-6.8%) 등 대부분 M7주들이 S&P500(-0.7%)의 성과를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주도주인 M7주의 성과 부진은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던 수익성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여파가 크다고 판단. 이런 측면에서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 CAPEX 가이던스 상향 여부 및 마진을 개선 여부(MS,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및 아이폰 수요 변화(애플), 전기차 사업 회복 여부 및 로봇 사업 구체화 플랜(테슬라) 등이 관전 포인트. 이는 국내 반도체 및 로봇주들의 주가 향방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 후반에 몰린 이들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내 주도주들 간 눈치보기 자세가 출현할 가능성을 열고 갈 필요.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 주요 업종들의 4분기 실적이 메인 이벤트. 이들은 1월 이후 코스피 5,000pt 달성을 견인한 주도주였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 4분기 실적 이후 나타나는 시장의 기대치 변화가 주도주로서 지속력을 결정할 전망. 1월 초 4분기 잠정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도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높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미 이들 반도체주들은 연초 이후 주가 급등분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에, HBM4 로드맵, 범용 메모리 수급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컨퍼런스콜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 또한 이례적으로 두 업체의 컨퍼런스콜이 1시간 차이로 진행되는 만큼, 실적 발표 당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놓고 롱-숏 플레이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시나리오에 넣어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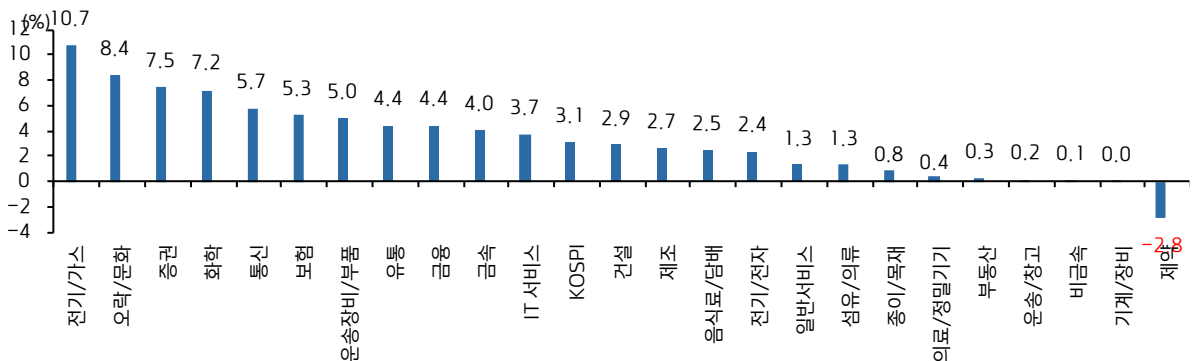
새해 이후 신규 주도주로 급부상한 자동차주들의 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현대차와 기아는 한때 연초 대비 각각 85%, 41% 폭등하면서 FOMO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음. 하지만 지난 주 후반 이후 차익실현 압력으로 고점 대비 각각 7.1%, 7.6% 하락하는 등 단기 고점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모습. 본업인 자동차 부문의 실적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보다는 로봇틱스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보스턴다이나믹스 상장 계획, 아틀라스 양산 관련 코멘트 등), 주주환원 계획 등이 중요. 그 과정에서 “내러티브 재생성에 따른 추가 매수 유입 vs 내러티브 소진에 따른 셀은 물량 출회” 간의 수급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4,990.07	0.8	3.1	21.2	18.4
대형주	5,261.00	0.7	3.1	23.8	20.2
중형주	4,061.61	1.0	3.8	6.5	9.1
소형주	2,582.63	1.3	2.1	1.0	2.6
코스피 200	727.29	0.7	3.2	24.4	20.0
코스닥	993.93	2.4	4.1	8.1	7.4
대형주	2,414.07	4.5	3.6	7.3	7.2
중형주	983.63	0.3	6.0	11.7	9.3
소형주	2,741.37	0.6	3.5	6.9	6.5
코스닥 150	1,657.10	4.0	3.2	7.5	7.1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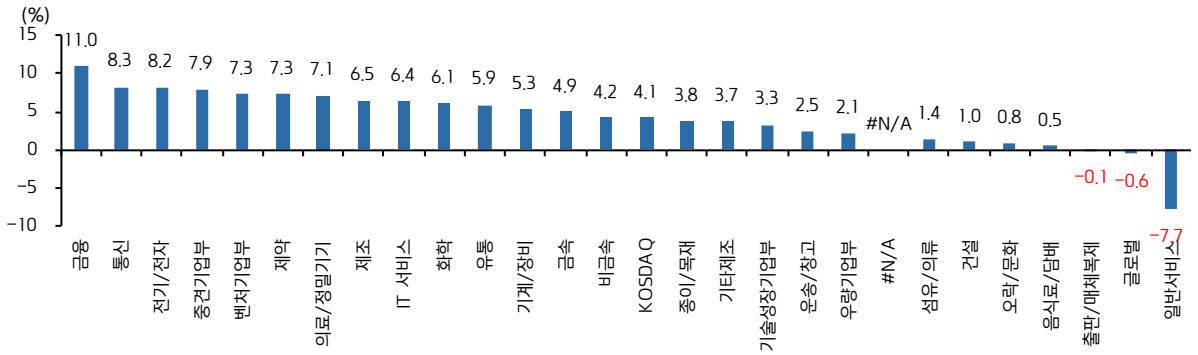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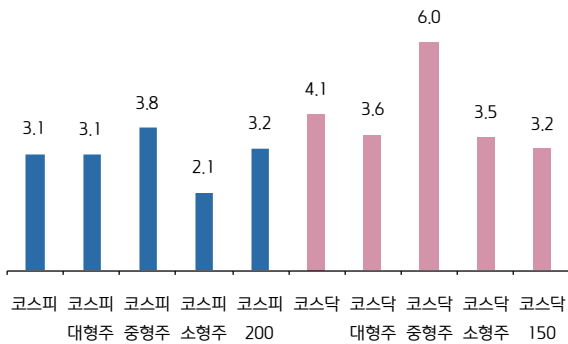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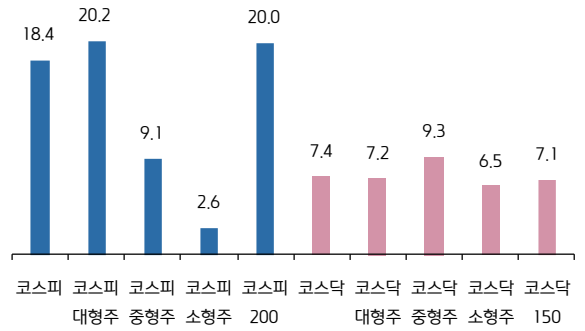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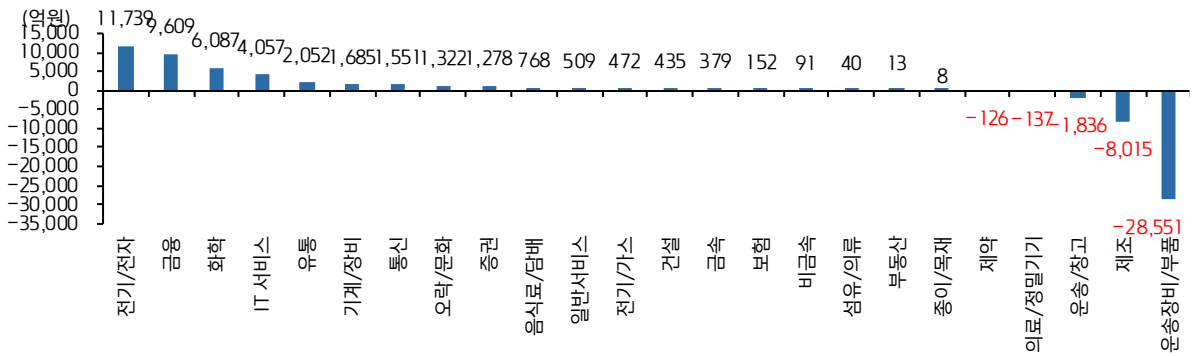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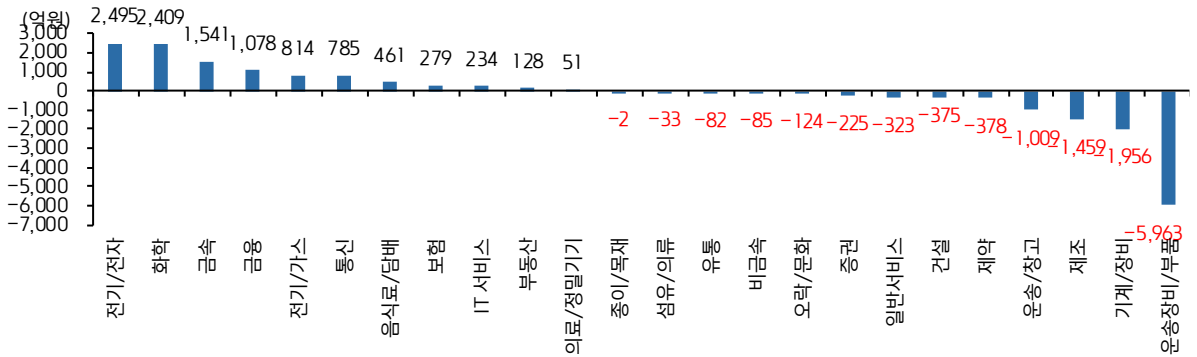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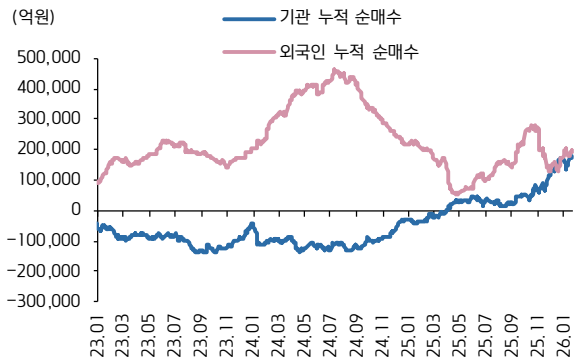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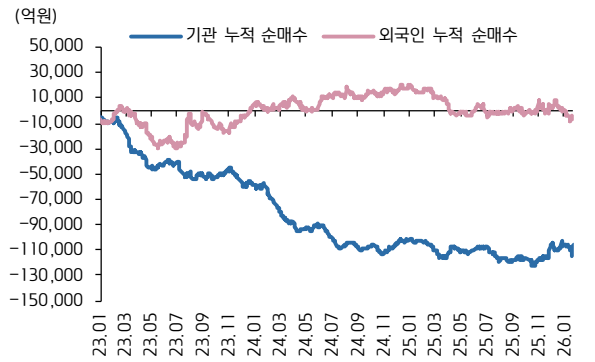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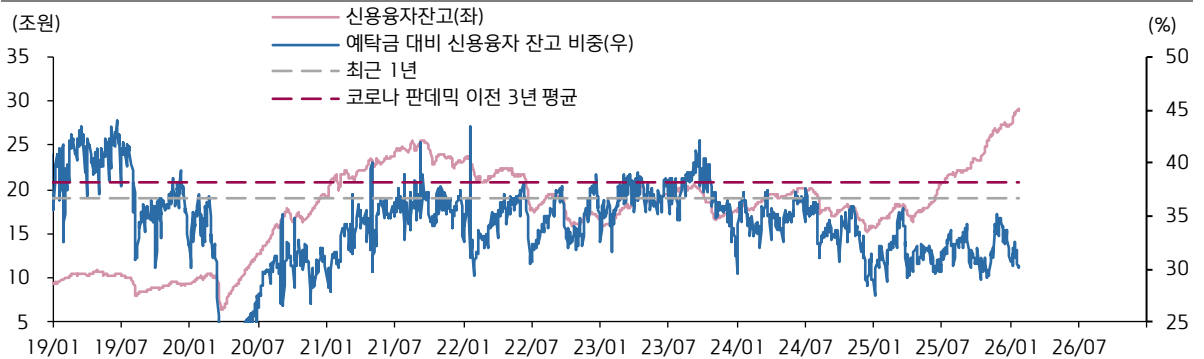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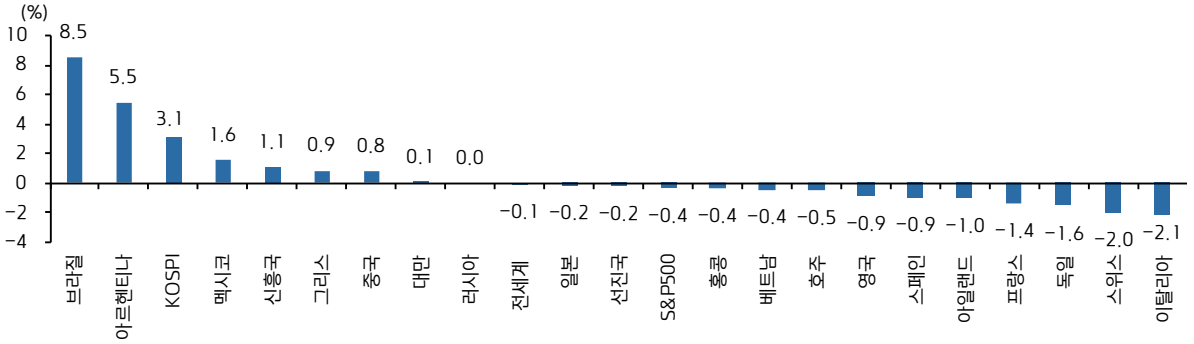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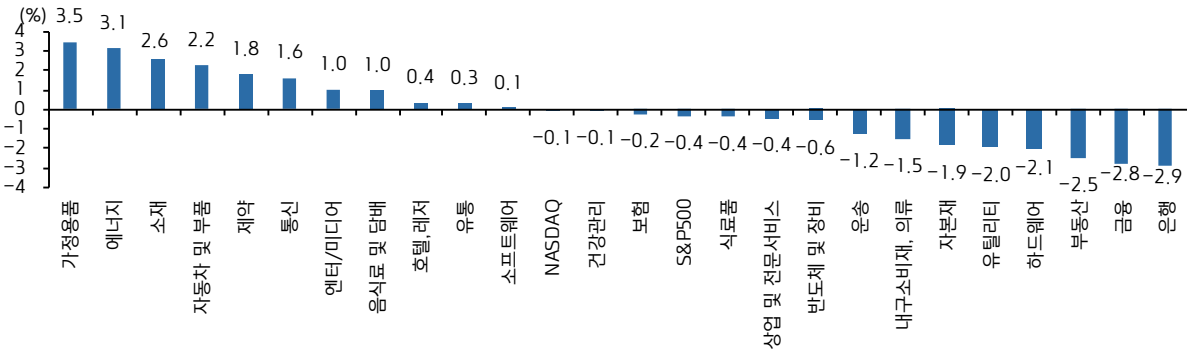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